

선수 연봉 인상 꿈도 못꾸고 당장 내년 운영비 걱정

1부 리그 입성 꿈 이룬 시민구단 광주FC의 서글픈 현실

“열악한 환경에서 탐으로 일군 성과인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광주FC 관계자>

“축하할 일인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답합니다. 재정 형편이 뻔하지 않습니까.” <광주시 관계자>
광주FC가 프로축구 K리그 1부 리그에 승격됐다. 마땅히 기쁨과 환호가 나와야 하지만, 광주FC의 현실은 되레 서글프다. ‘돈’ 때문이다.

1부 리그의 ‘격’에 맞게 선수들에 대한 대우도 뒤따라야 하지만 광주FC는 그에 맞는 운영비가 부족하다. 시민구단인 광주FC의 재원은 광주시의 예산 지원과 자체 수익사업이 전부다. 시즌 관람권 판매 등 1년 입장 수입이 아니라 고작 수익원 수준이고 지원을 약속한 스폰서도 아직까지 없다.

광주FC는 내년엔 최소 100억원의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2부 리그 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연간 운영비가 70여억원이었다. 40여 명 선수단 연봉 30억원, 의식주 해결 30억원 정도가 소요됐다.

1부 리그에 승격된 만큼 연봉 인상과 함께 숙소 등 선수단에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최소 100억원엔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광주FC는 내년 예산 4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했지만, 25억원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이것도 2부 리그에 남아있는 것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예산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1부 리그 승격은 축하할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내년 25억원 지원에서 더 나아가기 어렵다”며 “광주FC 스스로 운영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FC는 1부 리그 승격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 규모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00억 필요... 市지원 25억 불과 스폰서도 없고 시민 인기도 썰렁 윤시장 “힘 될 수 있는 길 찾겠다”

당장 내년부터 수억 삼성, 포항 스틸러스, 울산 현대 등 경쟁한 기업구단들과의 경쟁을 통해 1부 리그 잔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1부 리그 승격에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선수단 이탈과 사기 저하 등으로 다시 성적이 곤두박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FC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순수하게 탐으로 거둔 성과인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하며 스폰서도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때 성과가 나온다”며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했다.

구단주인 윤장현 광주시장은 고민에 빠졌다. 민선 6기 출범 당시 해체까지 논의됐던 광주FC가 1부 리그에 승격함에 따라 해체가 아닌 지원을 확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뼈대한 시 재정 때문에 지원을 확대하면 다른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탓에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FC의 1부 리그 승격이 확정되자 남기일 감독대행에게 축하 전문을 보내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윤 시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수들의 열정과 프로정신이 소중함을 결심했다”며 “여러분의 편에서 힘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들을 사랑한다. 승리하는 2015년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FC가 1부 리그에서 광주 시민구단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조직·예산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해 기업 스폰서 유치·마케팅 강화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는 지난 6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2014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경남 FC와의 원정경기에서 1-1로 비기면서 1·2차전 합계 4-2로 승리, 내년 시즌 1부 리그 복귀를 확정지었다.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이 1부 리그 복귀를 기뻐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광주시-시의회 깊어지는 예산·인사 갈등

시장 역점사업 위주 90억 삭둑

의원들 집단 민원성 예산은 증액

광주시 내년도 본 예산안 중 100억원 가량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삭감됐다.

이 가운데 윤장현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 상당수가 삭감되면서 윤 시장의 역점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예결위 최종 심사에서 시가 애초 편성하지도 않은 일부 의원들의 집단 민원성 사업 예산이 증액되면서 예산 편성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 3조85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 일반회계 기준 90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102억원 중 10억원 가량이 부활됐을 뿐 사실상 대부분이 그대로 삭감된 셈이다.

이 중 윤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차이나프렌들리 센터 설치, 남도문화관광안내 교류시스템 구축 등 2건, 1억10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또한, 윤 시장의 시장 철학이 담긴 직접 민주제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관련 사업은 시작도 못할 형편이다. 손소리 청취위원회와 1일 시민시장

제, 명예부시장제, 찾아가는 시민발안대 등 참여혁신 사업 등 11건 83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김지축예산 15억5000만원과 호남권역재활병원 적자 보전비 10억원, 옥작품 구입비 5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다만, 일회성 축제가 아닌 김지축산업 육성을 위한 행사비로 2억원을 신규 반영해 앞으로 김지축예산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을 위한 연수비 등은 신규로 반영됐거나 증액됐다.

또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장비구입비 8000여만원과 문화도시·도심재생 선진지 연수비 각 2000만원씩은 새롭게 편성됐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은 깎고 의원들이 선출자이다보니 집단 민원성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예결위원은 “예결위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한 ‘쪽지예산’은 없었다. 다만, 단체보조금이 턱없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거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업에 대해서만 증액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산하 기관장 인사 청문회 모색

의회, 추천위 참여 거부... 市, 자체 위원으로 임명 절차 강행

광주시의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의 인사를 놓고 시의회와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정실인사’에 반발해 추천위원 참여를 거부했지만, 광주시는 자체 위원만으로 임명 절차를 강행하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사청문회 시행 방안 모색에 나선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초부터 출연·출자 기관장과 임원 등의 임용을 위한 추천위원회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이미 재단법인 광주시 기후변화대응센터장과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및 이사,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임용에 필요한 의회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

내년 1월중에 진행될 교통문화연구소원장 추천에도 시의회는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더 큰 논란은 상당수 해당 기관에서 시 추천 거부

에도 자체적으로 추천위원을 선정, 임명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산하 기관장 등을 선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과 이사회 추천 각 2명, 시의회 추천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시 산하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이른바 후보에 따라 맞춤형 규정 바꾸기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환경공단은 특정 사회단체 출신을 상임이사로 앉히기 위해 자격기준을 변경했으며, 광주영어방송은 정년 예외 규정을 새로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8일 오후 4시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임택(새정치·동구 1) 의원이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 관계자가 ‘지방공기업 및 산하 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 방안 협의’를 보고한 뒤 황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토론을 벌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www.yncc.co.kr

첨단환경화학의 Global Guardian 여천 NCC

지구를 위한 최고의 가치창조, 바로 생명 지키기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며 생명을 소중하게 가꾸는 일은 환경화학의 첫걸음입니다.
맑고 깨끗한 첨단 환경화학, 그 으뜸자리에 여천NCC가 있습니다.



YNCC 여천NCC